"만나지 마까?"
"그걸 와 내한테 묻는데?"
"……만나지 마라 캐라."
tvN
화제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소설 출간!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제2644호 www.metroseoul.co.kr

중국 여성 2명 사망 인천공항 신종플루 검역 강화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플루(H1N1) 바이러스로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가운데 7일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발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 홀쭉해진 '13월의 보너스'

지난해 원천징수세액 내려 미리 환급받아…목돈 기대 직장인들 씁쓸한 1월

이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예년과 달리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데다 카드 등 주요 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사라질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 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5조3228억원에서 1209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지난해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되레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액은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 안팎 감소한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황기를 맞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 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에 지난해 환급액을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조5000억원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원24 연말정산서류 무료발급

한편 연말정산 기간 중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의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www.minwon.go.kr)는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하상윤기자 zan@metroseoul.co.kr

63빌딩 크기 소행성 내일밤 지구 근접 통과

2036년엔 충돌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의 63빌딩과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9일 오후 지구 곁을 통과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7일 근지구소행성(NEA Near Earth Asteroid) '아포피스'가 9일 오후 8시43분(한국 시각) 지구로부터 1446만7000㎞ 지점까지 접근한다고 밝혔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의 3.8배가량이다.

아포피스는 2004년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지름 220~330m의 근지구소행성으로 서울 63시티(249m)와 크기가 비슷하다.

근지구소행성이란 궤도상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가 1.3AV(천문단위)보다 가까운 소행성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날 아포피스가 지구에 근접하더라도 관측은 남반구에서만 가능해 동북아 지역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 연구원은 아포피스가 북반구 하늘에 나타나는 내달 초중반에 국내외 관측시설을 동원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구 근처를 통과하는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4일 오전 6시46분 지구로부터 3만1500㎞까지 근접 통과하게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2029년 이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23만3000분의 1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포피스가 지구 중력에 의해 궤도가 변경될 경우 다시 지구에 근접하는 2036년 4월 13일에는 충돌 가능성이 0.00043%로 낮기는 하지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동호기자 eleven@

신고만으로 위치 알려준다

위급상황 통합신고 '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범죄·재난 등 긴급 상황을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을 곧바로 연결하는 위급 상황 통합신고 앱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해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구조·범죄·납치·폭행·성폭력·신분증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해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예컨대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앱의 범죄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사고 신고 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기된다. 이때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사고·신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곧바로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으로 보내진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 우선 제공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정치株 3000억원 먹튀

지난해 대주주·특수관계인 4500억 지분매각 차익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해 증권가에선 정치 테마주 열풍이 거셌다. 테마주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무더기 손실을 본 반면 대주주들은 대량으로 주식을 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졌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테마주' 열풍 속에 대주주와 친인척 등이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18대 대선 유력 후보 3인과 관련돼 급등락을 보인 79개 테마주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은 2012년 한 해에 901차례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모두 4559억원이었는데, 이들이 지분 매각을 통해 약 3154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명암이 극적으로 갈린다. 최근 금감원은 150여 개 정치 테마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가 변동폭이 무려 302.3%에 이르는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고, 이 와중에 주로 개미투자자들의 계좌에서 1조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잇따르면서 일부 종목에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였던 정문술씨는 지난 9월 18~19일 보유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해 400억원가량을 챙겼다. 써니전자 곽영의 회장은 한 해에 313만 주를 팔아 132억원을 현금화했고, 친인척들도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했다.

/김민지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화당 빙판길 없애기 7일 서울 서초구 우지개아파트 인근 거리에 모인 주민과 공무원들이 삽을 들고 길바닥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고 있다. 서초구는 최근 빙판길에 의한 낙상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빙판길 제거 작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9호선 요금인상 당분간 없다"

여기가 우리 교실 7일 수원 화서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에 나온 신입생들이 엄마와 함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분간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다"면서 "시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 당분간 요금 인상을 할 수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부터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9호선 측은 지난해 시와 협의 없이 적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5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편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향후 안철수 신당 참여설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동호기자 [illegible]

겨울철 눈병 확산… '손씻기' 중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눈이 충혈되고 간지러운 급성출혈성결막염(AHC)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와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9일 전국 80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는 모두 338명이었다. 이는 이전 한 달의 주당 평균(205.25명)보다 64.68% 증가한 규모다.

급성출혈성결막염 주요 증상은 눈의 충혈, 동통, 간지러움, 눈물, 눈꺼풀 및 결막 부종 등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적어도 4일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주로 집단생활이 잦은 아동·청소년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눈병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얼굴과 눈 주위를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llegible]

현대차 사상 첫 주간2교대　오후 3시40분 꿈같은 퇴근 현대자동차가 창사 45년 만에 처음 주간 2교대 근무를 7일 시범 시행했다. 이날 첫 근무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공장에는 오전 7시31분을 가리키는 시계 아래로 근로자들이 승용차 생산에 여념이 없다. 1조는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는 오후 3시40분~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근무한다. /연합뉴스

<현직근무 129명>

대원외고는 '판·검사高'

전국 고교중 유일하게 100명 넘어 · 55명 경기고 제쳐

1984년 개교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출신 현직 판·검사가 129명으로 전국 고교 중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고교 중 100명 이상의 현직 판·검사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대원외고가 유일하다. 전통의 법조계 명문인 경기고는 55명에 그쳤다.

7일 법률신문사가 조사한 '2013년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전체 법조인 2만1717명의 출신고교는 대원외고와 경기고가 각각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목고가 법조인 배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원외고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38명이나 되는 법조인을 더 배출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외고의 강세는 225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6위에 오른 한영외고에서도 두드러졌다. 한영외고는 지난 2009년 톱10에 들지 못했다. 뒤이어 명덕외고(156명), 대일외고(136명)가 각각 12위와 15위에 올랐다.

특히 현직 판사 출신 고교에서는 대원외고가 85명, 한영외고 43명, 명덕외고 39명으로 1~3위를 차지했다. 대일외고는 23명으로 9위에 올랐다.

현직 검사는 대원외고가 44명, 순천고가 31명, 한영외고와 경북고, 경기고가 각각 22명을 배출해 '빅5'로 나타났다.

전체 법조인 출신고교는 경북고(315명)가 3위, 전주고(278명)가 4위, 서울고(258명)가 5위에 올랐으며 광주제일고(216명), 대전고(203명), 순천고(199명), 경복고(171명)가 각각 7~10위에 올랐다.

/배동호기자 claysen@metroseoul.co.kr

고교생 10명중 4명 물질만능주의 팽배

"10억 생긴다면 감옥1년 괜찮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은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살이 1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7~10일 수도권 거주 초·중·고교생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7일 따르면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고 답한 비율이 고등학생의 경우 44%에 달했다. 중학생은 28%였고, 초등학생도 12%나 같은 답변을 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정직지수'를 보면 초등학생 85점, 중학생 75점, 고등학생 67점으로 커갈수록 윤리의식은 점점 낮아졌다.

문항별로 보면 '남의 물건을 주워서 내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였다. /정윤하기자 unique@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 표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대한 주의 문구가 표시되는 등 이달부터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 급식소 1130여곳에 대해서는 살균 소독장치를 무료로 지원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래기자 grass100@

설연휴 열차 승차권 15~16일 예매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코레일은 설 연휴 열차승차권을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역 창구에서 예약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승차권은 예매 기간 오전 7~9시에 각 역과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정오는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다. 예매 첫날에는 경부·충북·경북·대구·경전·동해남부선 노선만 예매가 가능하며 둘째날에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노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예약매수는 1인당 12매(1회당 6매 이내)까지 가능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16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김용래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2>　글·그림 박상철

검찰총장후보 추천 접수

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8일부터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특하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피천거인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천거 기간은 14일까지이며 후보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유리기자

'희망가게' 여성가장 지원

한부모 여성 가장의 자립을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가게' 접수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서울·경기·인천·강원(원주·춘천)·대전(천안·청주)·대구(구미·포항)·부산(김해·양산)·광주(목포) 지역에서 만자녀 기준 2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이다.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도 관계없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4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02-3675-1240 /장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당 균 초
사장	김 종 탁
광고국장 직대	김 환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52

"인수위 1시간은 다음정부 1년"

박 당선인 "잘못된 관행 진단하고 새설계"
"설익은 정책 내뱉으면 국민 신뢰 못얻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했다.

박 당선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가 정책을 공유하지 않고 세금을 들여 정책만 만들 때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정책이 소통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과거 사례를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무질서하게 나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인식한 듯 인수위원들은 현안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 "저는 입을 닫았다"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모두 함구했다.

박선규 대변인도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제외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이날 보도된 '박 당선인의 5월 중 방미 계획', '국가지도자연석회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수위의 1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강조함에 따라 인수위는 임기 동안 휴일 없는 강행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기자 grass1@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내식당에서 인수위원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행복기금 상반기 출범…130만 신용불량자 구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이 상반기 중 출범하는 등 서민 관련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금융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취업 조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가중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삶의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사항으로 꼽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30만~14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차입금 7000억원 등 모두 1조86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2조원 규모의 '신심 서충발 펀드' 등을 거론한 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 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 원금 50%(취약계층 70%)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유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인수위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정규직화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을 앞둔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를 강화해 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으로의 선순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배동호기자 slaxon@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hile

"PSU" en

una prueba estandarizada para entrar a la educación super… y otras actividades extracurriculares al momento de escog…

Estados Unidos todo cuenta

China: inglés como base

metro Mexico

Astrología El Brujo Mayor prosperidad para México d

"멕시코 경제 놀랄만큼 좋아질것"

"멕시코가 올 한 해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5일(현지시간) 메트로 멕시코시티가 최고 점술가로 칭송받는 안토니오 바스케스 알바에게 멕시코의 국운을 물어본 결과 이 같은 낙관적인 대답이 나왔다. 특히 알바는 "놀랄 만큼 운이 좋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알바는 최근 몇 년간 멕시코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약범죄 소탕작전은 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점쳤다. 알바는 멕시코의 국기인 축구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권을 놓고 올해 벌어지는 예선전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란 예측이다.

metro USA

gun map

'총기 지도' 신문사에 테러 위협

최근 미국 뉴욕의 한 신문사에 정체가 의심스러운 백색 가루가 우편으로 배달됐다. 얼마 전 지역 내 총기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신문사는 즉시 무장 경비원을 배치했다. 지난달 저널 뉴스는 '옆집에 사는 총기 소지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총기 소지자 수천 명의 거주지를 온라인 지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른바 '총기 지도'에는 뉴욕시 북부의 웨스트체스터와 록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총기 면허 소지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가 범죄자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무슨 위험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휴~ 한국서 안 태어나 다행

메트로 칠레 "한국은 입시지옥… 매일 12시간 넘게 공부하는 학생들 자살률 세계 최고"

"학생들을 제대로 뽑고 있는 건가?"

최근 칠레에서 대학입학시험인 PSU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PSU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메트로 칠레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대입 제도를 통해 PSU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봤다.

많은 칠레인들은 각 대학이 PSU 점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시험 점수로 한정돼 있고 특기나 인·적성, 봉사활동 등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대학능력시험(SAT)에서 독해, 작문,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에세이와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을 심층 분석하고 교내 졸업 및 사회 봉사활동 내용 등도 중요하게 살펴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입 시험인 중국의 '가오카오'는 PSU와 유사한 방식으로 입학시험이 치러진다. 영어·중국어·수학이 필수 과목이다. 가오카오는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해 관리하지만 각 성, 직할시·자치구별로 과목이 일부 다르고 같은 과목이라도 문제가 달리 출제된다.

'아비투어'라고 불리는 독일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 입학시험이다.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며 구두 시험이 포함돼 있다. 특이한 점은 선택 3과목이 필수 2과목보다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제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개별 대학이 입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의 기초 코스가 가장 유명하다. 영국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입 시험에 출제되며 학교장이 대학에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한국에서 대입 시험은 '시험 지옥'으로 불린다.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시험 공부에 매달린다.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12~14시간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학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의 자살률도 높다.

/로드리고 고메스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HongKong

雲南惹

中 소수민족 마을 여성 가슴 만지기 관광 상품화 논란

중국 윈난성 쉬비아현 정부가 소수민족인 이족의 전통 명절 '탁내졘'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명절 행사 가운데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풍습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윈난의 소수민족들은 매년 음력 7월 14·15·16일을 조상을 기리는 '귀절(鬼節)'이라 부르며 다양한 전통 행사들을 연다. 이날에는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풍습도 전해져 내려온다.

윈난의 고대 작가는 '남자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운수가 좋고, 여성 역시 행운이 온다'고 글을 쓴 바 있다.

전통에 따르면 이날 여성은 왼쪽 가슴만을 가린 옷을 입고 오른쪽 가슴만 내놓는다. 왼쪽 가슴은 미래의 남편을 위해 남겨둔다는 것이다.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을 보면 가슴을 만질 수 있고 여성은 화를 내면 안 된다.

황당하고 엽기적이지만 이족에게 실제로 있었던 풍속이다. 한족의 영향을 받아 지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윈난과 가까운 미얀마에서 장면(?)에 민족이 유사한 풍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현(縣) 정부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비난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정리=조선미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20년째 수돗물 입에도 안댄 부부
- 그래피티 시민 허락받고 지운다

지수	
Nikkei (일본)	10599.01 (-89.10)
Hang Seng (홍콩)	23329.75 (-1.34)
Shanghai (중국)	2285.36 (+8.37)
Dowjones (미국)	휴장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63.50
엔(100)	1212.93
유로	1385.53
위안	170.76

작년 수입차 점유율 처음으로 10% 기록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 10%를 기록했다. 연간 판매 역시 역대 최대인 13만 대를 넘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13만858대로 2011년보다 24.6%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이 130만6749대로 집계돼 수입차 비중이 10.0%를 마크했다.

신규 등록 수입차 중 2000cc 미만 비중이 2011년(42.2%)보다 7%포인트 이상 늘어난 49.4%로 수입차 시장의 소형화 추세를 드러냈다. 2000~3000cc는 33.4%, 3000~4000cc는 14.1%, 4000cc 이상은 3.1%였다.

또 디젤차 판매가 가솔린차를 앞질렀다. 2011년 35%였던 디젤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50.9%로 절반을 넘었고 가솔린차는 44.2%, 하이브리드차는 4.8%였다.

브랜드로는 BMW가 2만8152대로 1위를 지켰고 메르세데스-벤츠 2만389대, 폴크스바겐 1만8395대, 아우디 1만5126대로 독일 4개 브랜드가 1~4위를 석권했다. 이어 도요타 1만795대, 미니 5927대, 포드 5126대, 렉서스 4976대, 크라이슬러 4123대, 혼다 3944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

/박성훈기자 zen@

공기업 '취업의 문' 조금 더 활짝

올해 채용계획 밝힌 기업들 지난분기보다 11% 늘려 … '고졸 확대' 눈길

올해 공기업의 정규직 신입 공채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조금 늘어난다. 고졸 채용도 확대되고 인턴 채용은 상반기에 집중됐다.

7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기업 42개사 중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한 기업은 전체 73.8%로 이들 중 54.8%인 23개사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계획이 '없다'는 곳은 19.0%를 차지했다. 아직 '미정'인 곳은 26.2%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23개사 중 채용인원 수를 밝힌 15개사의 채용인력은 전체 9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규모(881명)보다 11.7% 증가한 수치다. 한 기업당 평균 65.6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채용 예상 시기는 '상반기'에 집중됐다.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52.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신입사원의 연봉 수준을 밝힌 15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3018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 인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전체 42.9% 비율이었다. 이 중 66.7%는 상반기에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졸 채용을 하겠다는 공기업은 54.8%로 절반을 넘었다. 고졸 채용은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람인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331개사를 대상으로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2.2%가 '있다'고 답했다.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학력보다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해서'(68%)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도 종료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항공사 등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무이자 할부 종료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혜택 퍼주던 카드의 변심

수익성 악화 이유 앞세워 줄줄이 서비스 축소 나서

혜택이 많아 인기를 끈 신용카드사들의 주력 카드가 변심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부가 혜택을 무더기로 줄이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SK엔크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와이즈카드'와 '혜담카드', 현대카드 '현대카드M', 롯데카드 'VeeX카드', 하나SK카드 '매일더블캐시백' 등은 새해 들어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다. 전체 고객의 절반가량이 쓰는 이들 인기 카드는 전월 실적 강화, 포인트 적립과 할인 한도 축소, 연회비 인상 등 조치를 한 것이다.

먼저 전월 실적을 기존보다 최대 300% 올리고 포인트와 할인 적립률을 줄이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한도마저 제한했다. 카드사들은 매월 50만원 정도는 써야 기존 혜택을 주겠다는 태도다.

'SK엔크린 신한카드'는 7월부터 SK주유소 OK캐시백 서비스 대상에서 등유를 뺐고 KB국민카드의 '혜담카드'는 카드 발급 후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월 실적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4월부터 줄인다.

/김지성기자

OD Musical Company,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단 5주간의 특별공연

공연 오픈 기념 20% 할인!

(1/15까지 예매시 적용 가능)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3년 1월 8일~2월 9일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예술의전당 (02)580-1300 예매처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yes24

스마트&그린 건설산업 - 아람누리 자연친화 기술의 하모니

국내 공연장 최초 지열 냉난방

"세계 대표의 공연예술센터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 견줘 손색이 없다" 고양 아람누리에 방문한 리차드 스미스 뉴스위크 회장의 말이다.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을 표방하며 2007년 1월 준공된 고양 아람누리는 고양시가 1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완공된 첨단 예술 공연장이다.

아람누리의 특징은 사실 관객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바로 공연장 구석구석에 갖춰진 자연친화적 시설과 시스템들이다.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최근의 친환경 건설 트렌드가 반영된 것.

아람누리는 자연친화형 설계로 외관부터 돋보인다.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은 호주산 천연 자라목 등의 친환경 소재로 마무리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는 이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 국내 유수의 예술공연장 중 최초로 지하 250m의 지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하 250m의 지하수는 연중 섭씨 12도로 수온이 일정하다. 이를 파이프를 통해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지열에 의해 18~20도로 높아져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 효과를 얻게 된다.

건물 내 세면기 샤워실 등에서 나오는 물을 완벽하게 정수, 화장실 조경수용과 분수용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수(中水)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김지성기자

'부동산 스타'된 단독주택

주택유형 중 낙찰가율 최고…아파트·연립과 달리 매매가도 오름세

지난해 3월 228억5600만원의 감정가를 달고 경매장에 나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단독주택이 감정가보다 높은 287억원(낙찰가율 125.61%)에 낙찰됐다. 침체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단독주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대신 전통적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지난 2012년 들어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소재 주택(아파트 빌라 및 다세대·단독주택 및 다가구) 1만6814개를 25개 구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자들이 몰려들자 기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0.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가 0.3%, 연립주택은 0.2% 떨어진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매매가는 3.9%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0.1% 올랐다. 아파트는 최근 2~3년간 심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주거 여건이 괜찮고 환금성도 좋아 실수요와 투자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각광받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자유롭고 활용도가 다양해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었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로 가져갈 수 있는 토지 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자산가치는 물론 담보 가치 측면에서도 크게 뒤질 게 없다는 점 역시 매력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단독주택 선호도는 수년 전부터 양평, 가평, 춘천, 홍천 등 지방 중심으로 확산돼 왔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도심으로 번져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두용기자 kdy@metroseoul.co.kr

'CES 관문' 장식한 LG전자 LG전자(사진)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3'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라스베이거스의 맥카런 국제공항 터미널 D에 LG전자의 84인치 울트라HD 디지털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두 대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LG전자 제공

글로벌 투자은행들 한국 3% 성장 전망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2%에 그친 것으로 예상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 자료에 따르면 10여 개 글로벌 IB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3.0%였다.

모건스탠리가 3.7%로 가장 높게 전망했고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3.4%로 제시했다. 바클레이시스(3.3%)와 JP모건(3.1%)도 3%대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반면 BNP파리바그룹과 UBS는 2.9%로, BOA메릴린치는 2.8%로 전망했다. /박상훈기자

한국 수출서 신흥국 비중 70% 넘어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 중 4분의 3 정도가 미국·EU와 같은 선진국이 아닌 중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중남미와 같은 신흥국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이 작년 72.8%(3864억달러)로 10년 전인 2002년의 53.2%(865억 달러)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 비중은 46.8%(760억 달러)에서 27.2%(1442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신흥국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2002년 238억 달러에서 작년 1302억달러로 늘었고 비중은 14.6%에서 24.5%로 커졌다. 같은 기간 아세안 수출 비중은 11.3%에서 14.4%로 늘었고 중남미는 5.5%에서 6.7%로 증가했다. /김지성기자

진흙 속 진주 찾는 '꿈 창조자'

직업 ⑤ 콘텐츠 유통담당자-KTH 김수현 과장

"TV로 당구를 배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하자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열정을 믿고 '당구완전정복'을 올레TV 등에 올렸죠. 이런 노력이 통한 덕분인지 뜻밖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KTH에서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32) 과장은 '꿈을 창조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PD(Product Dreamer)로 자신의 직업을 표현했다. 때로는 오리 취급을 받는 콘텐츠를 화려한 백조로 변신시키는 재미는 꿈을 이뤄가는 것과 같은 감동을 맛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 더미 속의 숨은 진주를 발견하는 보람을 만끽하고 있는 김 과장에게 콘텐츠 유통 담당자의 세계를 들어봤다.

국내외 뜰만한 영상판권 구입해 공급하는 역할…외국어는 필수

-콘텐츠 유통 담당자란.

▲ 국내외의 채널, 배급사, 유통사 등에서 영상 판권을 구입해 올레TV 등 IPTV, 디지털케이블 등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한마디로 네티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를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국내외 시리즈, 연예 오락,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스펙은.

▲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방송 언론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면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타 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특별한 자격증도 필요없다. 다만 해외 업무가 많은 특성상 외국어는 기본이다. 여기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눈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다.

-연봉이나 처우는.

▲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비슷하니 따라서 복지 수준도 꽤 높은 편이다. KTH의 경우에도 대학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의 회사는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봉은 상대적으로 박한 편이다.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 겉으로 보여지는 콘텐츠 미디어 업계의 화려함을 보고 도전했다가는 실망하기 쉽다. 시장 변화가 빠르고 경쟁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다. 따라서 산학 협력 프로그램, 인턴 등을 통해 관련 업종에서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컨퍼런스, 콘텐츠 마켓 등에 적극 참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인 '디지에코' 홈페이지(www.digieco.co.kr)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smiles@metroseoul.co.kr

전력·열 생산해 공급 매출 1조·순익 795억

이번주 채용기업 GS파워

GS파워는 총 900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있다.

전력은 전력매매계약을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된 열은 안양과 부천 주변 지역 약 30만 세대에 지역 냉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

2000년 9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안양 부천의 열병합발전설비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 냉 난방설비를 인수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순이익 795억원을 창출했다. 또 최근에는 신규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해외 에너지 사업 투자 해외 O&M사업 등 해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소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그리고 에너지컨설팅 분야에까지 적극 진출하고 있다.

GS파워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GS파워 홈페이지(www.gspower.co.kr)를 참고하면 된다. /GS파워 제공

유례없는 혹한으로 올 겨울 두툼한 '패딩'이 '국민 아우터'로 거듭났다. 하지만 몸에 착 감기는 모직 코트가 아닌 만큼 자신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키는 커 보이게, 통통한 뱃살은 홀쭉하게 만드는 마법의 코디를 귀띔한다. /이지현기자

짧은 다리 길~게 두툼한 뱃살은 홀~쭉

패딩, 코디의 기술

왜소한 여성에겐 쇼트 패딩이 잘 어울린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의 조미순 수석 디자이너는 "무릎을 덮는 롱 패딩은 작은 키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며 "짧은 패딩에 모직 반바지, 기모 레깅스를 매치해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하라"고 조언했다.

반대로 체격이 큰 경우엔 벨트 장식이 달린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크로커다일레이디의 프리미엄 롱 구스다운은 웰빙 기술과 벨트 장식으로 드럼통 허리 라인을 슬림하게 잡아준다. 엉덩이를 덮은 긴 길이라 체형 결점 커버에도 효과적이다.

하체 통통족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히프 패딩'이 최선이다. 롱 패딩에 비해 보온성은 떨어지지만 둔해 보이지 않아 보통 체격의 여성들에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 키가 크고 마른 여성에겐 카키색 밀리터리 패딩을 추천한다. 니트 워머, 그래픽 스웨터 같이 컬러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을 함께 코디하면 포근한 룩이 완성된다.

한파 이기는 '상큼한 힘'

연일 몰아친 한파로 여기저기서 콩콩 앓는 소리가 들린다. 연일 찾은 모임으로 피로해진 몸을 따고 든 감기나 몸살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땐 먹는 것 하나에도 신중해진다. 과일과 채소가 든 '비타민 메뉴' 라면 몸이 한결 생생하게 살아난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예년보다 싸진 딸기 등 겨울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메뉴' 군침도네

장을 보러 나설 계획이라면 딸기를 눈여겨봐야겠다. 이달 들어 딸기값이 내렸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데다 작황도 좋아 지난달보다 20%, 예년보다 10%가량 싸졌다. 롯데마트에선 10일부터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한 팩(400g)당 7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감기로 고생 중이라면 배를 구입해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도움이 된다. 배는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혀주는 천연 감기약으로 통한다. 원액기 브랜드 휴롬이 추천하는 레시피는 '배소어 주스'. 배(250g)와 삶은 콩(50g)을 주서기에 넣고 착즙해 마시면 된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가 풍성한 샐러드는 한겨울에 아삭아삭한 봄을 맞는 기분까지 느끼게 한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에이프리 카페에선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찾는 가족 고객들을 고려해 샐러드 바를 운영하고 있다. 시저, 아스파라거스 등 16가지 다양한 샐러드와 함께 아이들 입맛에 맞은 제철 과일 디저트를 준비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에서는 요즘 샐러드 메뉴를 강화하고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주재료로 사용한 '모짜렐라 토마토 샐러드'와 쫄깃한 타피오카 펄에 키위와 망고, 용과를 버무린 '하와이안비틀 샐러드'는 상큼 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식사 후엔 커피 대신 건강 음료가 도움이 된다. 할리스커피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수삼을 갈아 넣은 '허니수삼라떼'를 어렌 겨울 내놨다. 수삼의 쌉싸래한 맛을 꿀의 달달함 속에 즐기게 했다. 잠바주스에선 비타민 C가 풍부한 제주산 감귤을 통째로 넣어 갈아낸 감귤주스를 선보이고 있다.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즐기는 것도 건강한 습관이다. 청과업체 돌(Dole)코리아가 내놓은 과일 스낵 제품 '건망고'와 '바나나칩'은 각각 망고와 바나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건조한 것으로 특유의 맛과 식감을 살렸다.

속 든든해지는 음료 신제품

날씨가 추우니 출근길 허기가 쉽게 찾아온다. 허기 간편하면서도 속이 든든한 '건강 충전' 음료 신제품이 반갑다.

■베지밀 인삼가득 바나나두유(정식품)=통을 갈아 넣어 담백하고 고소한 두유에 달콤한 바나나 과즙을 넣었다. 칼슘 100mg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3를 추가했다.

■한라봉과 유자(광동제약)=제주산 한라봉 과즙과 국산 유자 과즙을 넣었다. 겨울철에 간 것을 챙기면서도 상큼한 음료를 찾는 이들을 위해 따뜻하게 즐길 수 있게 한 온장고용 음료.

■우리두유 든든한 고구마(동아오츠카)=업계 최초로 군고구마를 살을 두유에 군고구마를 통째로 갈아 넣었다.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에 비타민, 무기질까지 골고루 들어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

로얄살루트가 택한 홍명보 '마크 오브 리스펙트' 수상

7일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로얄 살루트'가 '제3회 마크 오브 리스펙트(Mark of Respect)' 수상자로 홍명보(사진 오른쪽)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을 선정,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마크 오브 리스펙트'는 분야에 숨겨에 성과를 남긴 인물을 찾아 존경을 표하는 시상식이다. 이날 홍명보는 '로얄 살루트 62건 살루트'와 함께 받은 상금 5000만원 전액을 홍명보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운동후 무릎통증땐 관절초음파 검사

우상호병원이 알려주는 '스포츠손상 대처법'

방치땐 관절염 우려… 프롤로·DNA 주사 도움

40대에 들어서면 건강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챙기게 된다. 가볍게는 등산부터 시작해 헬스와 요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도 중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의욕을 앞세워 무리하다가 무릎 등에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 무리한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나 연골의 손상, 내측추벽의 비후, 장경대와 마찰에 의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손상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운동을 쉬면 괜찮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통증이 재발해서 좌절하게 된다. 심지어 MRI를 찍어봐도 MRI에 나타나기에는 경미한 손상이기 때문에 잘 진단되지 않거나, 진단되더라도 투약·물리치료 정도를 제시받게 된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작은 손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무릎 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유상호병원 유상호 병원장은 "스포츠로 인한 손상에서는 오히려 관절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더 유용하다"며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나 무릎을 싸고 있는 작은 인대들을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상이 발견되면 초음파 유도하에 연골판과 인대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 DNA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고 유 원장은 조언했다.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는 인체에 무해한 고삼투압 용액으로 이뤄져 있다. 손상된 연골판, 인대 부위에 관절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주사해주면 체내에서 국소적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변형을 억제시켜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DNA 주사는 힘줄 내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같은 성장인자를 자극해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유 원장은 "초기 손상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대개 무릎 손상은 수술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절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지기자

치실·치간 칫솔만 잘 쓰면 '나도 건치스타'

구강관리는 치태제거부터!

새해 목표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다. 그 중에서도 치아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구강 관리 습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를 망가뜨리고, 잇몸을 손상시키는 '치태'는 모든 구강질환의 원인이 된다.

치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은 치실과 치간 칫솔이다. 잇몸이 건강하고,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경우는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치실이 치아 사이를 통과할 때 과도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과도하게 힘을 주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면을 따라서 위아래로 쓸어내듯 사용하도록 한다.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잇몸이 퇴축해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잇몸 부위에 공간이 생긴 경우 쓰는 게 좋다. 치아 사이의 간격에 맞춰 치간 칫솔을 선택해야 한다. 간격보다 너무 두꺼운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너무 얇으면 치태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

예스치과 송은경 원장은 "치태 제거만 잘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치료받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칫솔만으로 치태 제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지기자 mnj@metroseoul.co.kr

star bag

일본서 '강지환 축제' 개최

배우 **강지환** 주연의 영화 지형시 일본 개봉을 기념해 '강지환 축제'가 열린다.

현지 배급을 담당하는 SPO는 영화 개봉일인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새테마트 롯폰기에서 '강지환 축제 2013'을 연다고 밝혔다. 강지환의 또 다른 히트작 '7급 공무원'과 '영화는 영화다'가 집중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강지환은 다음달 2일 첫 방송되는 SBS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주연을 맡았다.

성형외과 상대 억대 소송

장동건·보아 등 연예인 6명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송혜교·보아·김남길·소녀시대 제시카와 티파니는 "병원 측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바퀴' 합류… 19일 방송

박명수가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에 MC로 합류한다.

MBC는 7일 합류 소식을 전하면서 "박명수가 박미선·이휘재 등 기존 MC와 함께 프로그램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첫 녹화를 진행하며 출연분은 19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세바퀴'는 지난해 4월 김구라가 위안부 발언 논란으로 하차한 후 2AM 조권 등을 스페셜 MC로 영입해 공백을 채웠다.

도쿄서 1만여 명과 팬미팅

배우 **김남길**이 1만여 관객과 함께 생애 첫 일본 팬미팅 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5일부터 6일까지 도쿄 국제포럼 홀에서 진행된 투어 '나쁜 남자' 어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 9곡을 열창한 그는 감춰왔던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객석을 사로잡았다. 이날 팬미팅에는 절친 정소민이 게스트로 등장해 힘을 보탰다. 8일과 9일 오사카에 이어 12일 나고야 순회로 공연을 이어간다.

"나, 욕해서 확~뜬 배우"

'SNL 코리아'로 주목받은 신인

김슬기

신인 연기자 김슬기(22)에게 지난해는 움츠렸던 싹을 세상 밖으로 내놓은 해였다. tvN '새터데이나잇라이브(SNL) 코리아'로 눈도장을 톡톡히 찍은 그는 데뷔 1년 차 신인에게 붙은 '대세'라는 버거운 수식어에도 "칭찬을 많이 먹고 자라야 하는 시기라 부담보다는 기쁜 마음이 앞선다"며 당찬 모습을 드러냈다.

끼 많던 부산 소녀의 혹한시절

초등학교 시절 발레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집안 사정으로 발레를 접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더 멋진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친구 손에 이끌려 나갔던 부산청소년가요제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음악에 대한 소질을 발견했다. 또 사이트에 올렸던 노래 동영상이 유명 기획사의 눈에 띄어 아이돌 데뷔도 제안받았을 정도로 실력은 출중했다.

그러나 스타가 되는 것보다 예술에 꿈이 있었던 만큼 스카우트는 고사했다. 표현에 대한 열정은 밴드부로 이어졌고, 무대 위의 희열은 연기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다.

부모님은 넌지시 다른 길을 추천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소질을 살려줄 뒷받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승낙을 얻어낸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유난히 아팠던 첫사랑 덕분이었다.

"사귀던 오빠와 헤어지고 며칠간 묵언 수행하다 꺼낸 첫마디가 '학원 보내주세요'였어요. 애는 살리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지원해주신 것 같아요. 히히히. 학원 가서도 '너는 배우가 될 것 같으니 투자하는 셈치고 학원비를 깎아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죠. 역시 달해서 받아주신 게 아닐까요."

유난히 끼 많던 부산 소녀는 서울예술대학 연기과 10학번으로 한 방에 합격하며 그토록 원하던 예술계에 발을 들였다. 동아리 민님의 시도 30주년 기념공연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당시 여주인공을 맡았던 후배 김슬기를 눈여겨보고 'SNL'에 영입했다.

귀요미 데뷔 첫 화면를 만족

2011년 'SNL'의 '귀요미'로 데뷔한 그는 "생각보다 '화면빨'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첫 화를 회상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후회하기보다 90%는 칭찬하고 10%는 생각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윤상 선배님이 진행하는 '무드 송 베스트 송'에서 노래를 부르다 박자를 놓쳤던 게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가사도 막 지어서 부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실제 방송을 보면 실수를 눈치 챌 수 없을 만큼 유연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1년의 혹독한 생방송은 신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밑거름이 됐다.

대선 시즌에는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또'로 인기몰이를 했다. 특유의 독기와 앙칼진 모습을 높이 산 제작진의 권유로 다른 코너에서는 여정희 후보까지 도맡으며 정치인 패러디의 달인이 됐다.

"욕해도 귀여운 이미지는 흔치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히히히. 제가 욕으로 먹고살게 될 줄은 몰랐죠."

지난해 최고의 순간을 "SNL을 했던 모든 시간"으로 꼽은 그는 "'SNL'이 '무한도전' 같은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크루로서 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공효진 선배님이 롤 모델

학교 동기들 모두 무대나 TV를 목표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졸업 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행운이라고 느낀다.

"뮤지컬로 시작해 연극 무대에 서고 방송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영화·드라마·예능 등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을 펼치는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노래도 계속하고 싶고요."

얼마 전 KBS 드라마스페셜 '또 한 번의 웨딩'으로 지상파 나들이에도 성공했다. 목표로 하는 롤모델이 있는지 넌지시 묻자 예의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공효진 선배님처럼 사랑스러운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정보혜

박근혜 당선인 모티브 '또' 캐릭터로 인기몰이

고2때 첫사랑 후 연기 가수 데뷔도 제안 받아

"1박 60만원 호텔서 잤다" 비, 군행사 후 특혜 논란

군 복무 기간 중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정지훈)가 군 외부 공식 행사에 참여한 후 특급호텔에서 숙박했다는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국방홍보원 소속의 비와 KCM은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홍보지원 행사를 마친 뒤 C호텔 로얄 스위트룸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숙박료가 6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돼 일각에서는 군의 통솔을 벗어나 주최측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비뿐만 아니라 연예병사 11명 등 40명에 가까운 군 관계자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함께 투숙했다"며 규율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방홍보원을 비롯한 협회 회원사에 기본적인 숙박시설을 지원했으며, 일부 출연자들에게는 비보다 높은 등급의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조성민 극단적 선택 막을 수는 없었나?

이슈 벤터 /조성준기자 when3

지난해였다. 동네에서 조성민과 자녀들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다.

환한 얼굴의 조성민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두 남매를 두 팔 벌려 꼭 안아주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수군대는 모습이었다.

기자라면 당연히 조성민을 붙잡고 한마디 말이라도 물어봐야 했었다. 그러나 솔직히 하기 싫었다. 오랜만에, 그리고 어렵게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만의 단란한시간을 깨고 싶지 않아서였다.

생전의 그는 세간의 무수한 억측과 소문에도 저간의 속사정을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진실과 갈라설 때도, 친권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신일고와 고려대부터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시절까지 있고 지냈던 몇몇 스포츠 신문의 고참 야구 담당 기자들에겐 늦은 시간에 흐트고 나서 기분의 속내를 털어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와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때는 애들 엄마의 편만 들어주는 연예부 기자들이 정말 미웠다"며 푸념했다고 한다.

연예와 야구 취재를 모두 경험해본 처지에서 지난 일요일 새벽 조성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니 괜히 반성문을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다. 파경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를 떠나 조성민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한 적이 있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하게 된다.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 용과 미움을 추스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당사자에게 "왜 그랬냐"고 먼저 따져 물어야겠지만, "더 이상 한국에서 살 길이 없다"는 내용의 마지막 메시지가 말해주듯 대중의 따가운 시선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싶다.

삶이란 마운드에서 허무하게 강판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부검결과 사인은 자살

6일 목을 숨진 채 발견된 고 조성민의 사인이 시신 부검 결과 자살로 결론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목맴사기 합당하다"는 부검의 의견에 따라 예조 예상대로 사건을 자살로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새벽 조성민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자택에서 욕실 샤워기 거치대에 가죽 허리띠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조성민이 사망 전날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받았고, 주변에 문자 등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사망 추정 시각과 관계자 진술이 다소 엇갈린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합의하에 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시신을 부검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은 2~3주 내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8일. 장지는 고 장진영과 채동하가 묻힌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으로 결정됐다.

/박진범기자 sak0427@

강호동 새 토크쇼 '맨날나이트' 출연진 캐릭터 윤곽

최강창민 반듯 꽃미남 정재형 허당 유학파

강호동이 진행하는 KBS2 신설 예능 프로그램 '달빛이 좋다, 맨날나이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강호동을 메인 MC로, 최강창민·용감한 형제·정재형·탁재훈을 보조진으로 꾸린 이 프로그램은 최근 첫 미팅을 갖고 각 출연자의 캐릭터 점검을 완료했다.

아이돌 그룹이지만 학창 시절 모범생으로 정평이 난 최강창민은 '반듯 꽃미남'으로, '무릎팍 도사'에서 방황의 시기를 공개했던 용감한 형제는 "거친 남자"로 포지셔닝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고등사범음악원을 졸업한 정재형은 '허당 유학파', 차진 입담을 자랑하는 탁재훈은 "철들지 않는 어른"으로 분한다.

최강창민, 용감한형제, 탁재훈, 정재형(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 제작진은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각 MC진이 수행자인 형태의 팀으로 구성돼 게스트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순 첫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승우의 승승장구 후속으로 22일 첫 방송된다.

/한보람기자

국민 드라마 '내 딸 서영이'

거짓말 터질수록 시청률 쑥쑥 40% 돌파…'넝쿨당' 속도 앞서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거짓말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며 시청률 40% 고지를 돌파했다.

6일 방송된 34회 시청률이 40.2%(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첫 국민 드라마에 입성했다.

지난해 45.3%로 종영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방송 42회 만에 40% 벽을 넘은 것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상승세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 '내 딸 서영이'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인 KBS2 일일극 '힘내요 미스터 김' 역시 20% 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내 딸 서영이'의 독주는 더욱 눈에 띈다.

출생의 비밀·불륜 등 일부 진부한 플롯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서로에게 큰 죄를 짓고도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핏줄의 힘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다는 평이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미필적 고의' 개콘 간판 코너로 뜨나

개그맨 김대희·김원효·박성광·송병철이 뭉친 KBS2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미필적 고의'가 간판 코너로 떠오를 조짐을 보였다.

6일 첫 방송된 이 코너는 김대희·김원효·송병철이 부잣집 아버지와 아들로, 박성광이 택시기사로 변신해 택시 요금 3000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려내 큰 웃음을 유발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방송 후 각종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고, 시청률은 코너 중 가장 높은 32.7%(TNmS 전국 집계 기준)를 기록했다.

/박성훈기자

다문화가정의 한 소년 뮤지컬 오디션 도전기

찬란한 감동… 진지한 성찰

film review

■마이 리틀 히어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뮤지컬 교육을 받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지대한)이 뮤지컬 오디션에서 우승한다는 내용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품는 1월과 잘 어울리는 영화다.

얼핏 탄광촌 소년이 역경을 딛고 발레리노로 성장한다는 영국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떠올리게 한다. 단계마다 탈락자를 선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실력이 급성장하는 영광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박수를 치게 된다.

실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영광 역의 지대한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돼 1년간의 강훈련 끝에 영화 속의 노래와 안무를 소화해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발톱이 닳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순수한 감동을 전한다. '빌리'와 더불어 '완득이'가 떠오르는 이유다.

한편 이 영화는 속물 근성을 지닌 음악감독이 한 소년을 만나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자기성찰적인 면도 동시에 담고 있다. 병역을 마치고 스크린에 돌아온 김래원은 지대한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춰가며 음악감독 유일한 역을 연기했는데, 극 초반 둘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다가 후반부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더불어 말 못할 비밀을 감춘 유일한이 지닌 개인적인 갈등도 잘 표현했다. 뉴욕 거리를 담은 엔딩에서의 표정은 꽤 인상적이다.

다만 후반부에 오디션 장면이 길어지면서 지루해지는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관객들의 마음을 분산시킨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심혈을 기울여 연출한 다양한 오디션 장면에 대한 애정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담으려는 연출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객을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9일 개봉. 전체 관람가.

또디 by 정연식 <568>방문2

'오페라의 유령' 100만 눈앞

10월 마지막 티켓박스 오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쓴다.

설앤컴퍼니는 8일 "탄생 25주년 기념일인 26일, 2001년 국내 초연 이래 동원된 관객이 100만 명을 넘는 경사를 맞게 된다"면서 "이날 공연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특별한 커튼콜과 선착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증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지난 10여년간 라이선스 및 내한 공연으로 4차례나 국내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부터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2005년에 이은 두 번째 내한 공연을 이는 중이다. 주인공 팬텀을 2000회 이상 연기한 전 세계 단 4명의 배우 중 한 명인 브래드 리틀과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의 글래이 라이언이 파워풀하고 섬세한 연기로 매회 기립 박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내한 공연은 2개월간의 좌석이 개막 전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다음달 공연도 유료 좌석 점유율이 90%에 육박했다. 12월 개막이었는데도 2012년 뮤지컬 시장 결산에서 3위(인터파크 집계)를 차지하는 이색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주최 측은 흥행 요인에 대해 "작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 세계적인 25주년 축하 무대의 하나로 기획된 기념 내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국내 관객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3월 24일까지 열리는 이 공연은 10일 마지막 티켓 박스를 오픈한다. /박진아기자

영화 '베를린'의 주연배우 하정우, 전지현, 류승범(왼쪽부터)이 7일 오전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베를린' 하정우 "진정한 액션 찍었다"

영화 '베를린'의 주연공 하정우가 영화 촬영 내내 와이어 액션으로 고생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하정우는 7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진정한 액션 영화는 처음 찍어봤다"며 "매듭을 배우고 주먹 쥐는 기부터 배운다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의 비밀요원 표종성 역을 맡은 그는 실력파 첩보 요원으로 와이어 액션은 물론 강도 높은 격투와 총격 장면을 소화했다.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표종성을 쫓는 남한 측 첩보요원 정진수 역은 한석규, 북한 측 첩보요원 동명수 역은 류승범이 연기했다. 전지현은 표종성의 동거녀이자 비밀을 감춘 통역관으로 분했다. 31일 개봉.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가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 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Brad, 이쪽은 필립이야. Philip, this is Brad.
B Hello Philip. Nice to meet you.
C 저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A 브래드와 저는 오랜 친구예요. We went to high school together. And Phillip is my co-worker. We work together.
B Really?

정답 this is Philip / I'm pleased to meet you, too / Brad and I are old friends

생생영어팁

▶ How do you do? 안녕하세요?
VS. Hello / How are you? 안녕 / 잘 지내요?
VS. What's up? 어때?

How do you do?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영어 교재 등에서 How do you do?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런 말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죽은 말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정중히 인사할 때 잘 쓰이죠. 그러나 좀더 편한 자리라면 Hello, 또는 How are you?가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편한 사이에서는 What's up?을 써요. 주로 젊은 사람들끼리 아주 편하고 격의 없는 자리에서 쓴답니다. 다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라면 What's up?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lternative	명 대안 (to) 형 대체 가능한	as an alternative to the plan 그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appointment	명 약속, 임명 appoint 동 (시간을) 정하다, 임명하다	keep an appointment with the team leader 그 팀장과의 약속을 지키다
atmosphere	명 분위기, 기운, 공기	a friendly atmosphere 우호적인 분위기
capacity	명 용량, (관중, 청중) 수용 능력	a seating capacity 좌석 수
cultivation	명 (관계) 구축, 경작 cultivate 동 (관계를) 구축하다, 경작하다	the cultivation of a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 구축
detail	명 세부사항 동 상세히 열거하다	for more details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5. Propose a solution

음성 메시지 듣고 이해하기

• 상대방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상대방의 이름]
Hello, this is Gwe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웬입니다.
Hi, it's me Rachel. 야, 나 레이첼이야.
Hello. My name is Sunn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써니입니다.

[상대방의 직급 및 직책]
Hello, this is Gwen, the manager.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인 그웬입니다.
Hi, this is Rachel, the director.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인 레이첼입니다.
Hi, this is Sunny, your supervisor.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상관인 써니입니다.

[상대방의 소속]
Hello, this is Gwen from the sales departm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의 그웬입니다.
Hi, this is Rachel from ABC Company. 안녕하세요, 저는 ABC 회사의 레이첼입니다.
Hello, this is Sunny from ABC Hotel. 안녕하세요, 저는 ABC 호텔의 써니입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추신수·류현진 3월 맞대결 하나

신시내티 스프링캠프 일정 공개…다저스와 3차례 시범경기

추신수 · 류현진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다음달 16일부터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류현진(LA 다저스)과 맞대결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시내티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프링캠프 일정을 공개했다. 두수와 포수는 다음달 13일 훈련에 돌입하고, 야수들이 가세하는 팀 전체 훈련은 16일부터 시작된다.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볼파크에서 클리블랜드와 오전·오후로 나눠 훈련을 같이할 계획이다.

신시내티에서 우익수가 아닌 중견수로 변신하는 추신수는 시범경기에서 수비 능력을 검증받는다. 미국 언론은 정확성과 파워를 겸비한 추신수가 신시내티의 톱타자 공백을 말끔히 메울 것이라면서도 중견수 수비는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팬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신시내티의 시범경기 일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8차례 시범경기를 치르는 신시내티는 시범경기 개막 첫 3연전을 추신수의 친정 팀인 클리블랜드와 벌인다.

또 인근 캐멀백 랜치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하는 LA 다저스와는 3월 9·13·23일 등 세 차례 격돌한다. 류현진과의 한국인 투·타 대결이 관심을 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기태 "팬들에게 빚졌다"

김기태 LG 감독이 "팬들에게 항상 빚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선수들을 다그쳤다.

김기태(사진) 감독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선수단 시무식에서 "팀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노력해 길 바란다"며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2003년부터 10년 연속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LG는 자율 훈련 기간에도 선수들이 쉼 없이 훈련을 이어가는 등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민준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안개 싸인 10구단 최후 승자는

7일 부영·전북과 KT·수원이 10구단 창단 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총산 32조원을 가진 재계 11위의 IT 통신그룹 KT가 손쉽게 열 번째 심장을 손에 쥐는 듯했다. 재계 30위 12조5000억원 규모의 부영·전북은 안정성과 흥행성에서 KT의 적수가 못 되는 듯했다.

그런데 대선 직후 부영·전북의 행보가 만만치 않았다. 치밀하고 신선한 논리를 앞세워 여론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연고지 팬들의 호응도, 흥행 분석, 도민 100만 명 유치 서명서 제출, 전주고와 군산상고에 2억원 쾌척, 정읍 인상고 창단, 재능 기부 등 각종 홍보전을 펼쳐 여론을 공략했다.

정치적 상황도 변수가 됐다. 대선 직후 박근혜 당선자와 대통합 정치와 맞물려 전북의 프로야구단 유치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부영 측이 든든한 현금자산을 앞세워 신구장 신축 등 대대적인 투자까지 약속하는 공약을 내놓자 판도가 흔들렸다.

부영의 치밀한 홍보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 측은 농구단 직원들을 투입해 언론사 등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다. 한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 수원 KT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면서 안정성을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을 썼다.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 논란도 빚어졌다. 부영이 원래 수원에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려다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KT는 지역안배론을 지단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는 공세를 펼쳤다. 부영 측 서포터스는 KT도 국회의원과 연수위원을 동원해 창단을 지지하는 정치적 모임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KBO는 1월 말까지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구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10구단 적합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종 선택권은 이사회와 구단주 총회에 달려있다. 각 구단의 이해관계도 결정적 변수다. 최후의 승자는 안개에 휩싸여 있다.

/OBS 야구해설가

샤라포바 4세 연하와 열애설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26)의 열애설이 또 불거졌다.

미국 USA투데이는 7일 "샤라포바가 몇 달 사이에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48위인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미트로프는 1991년생으로 샤라포바보다 4세가 어린 선수로 한 손 백핸드를 구사하는 등 플레이 스타일이 로저 페더러와 비슷하다는 평을 듣는 기대주다. 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끝난 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고, 여러 번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샤라포바는 농구 선수 사샤 부야치치와 2010년 10월 약혼했으나 지난해 봄 파혼했다.

/김민준기자

기성용 아스널전 2호 AS

컵대회 풀타임 활약 동점골 견인…"볼배급 환상적"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이 강팀 아스널을 상대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했다.

기성용은 6일 열린 아스널과의 2012~2013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 홈경기에서 1-2로 뒤지고 있던 후반 42분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어시스트로 2-2 동점골을 도왔다.

페널티지역 안쪽에서 공을 잡은 기성용은 골대 근처에 있던 대니 그레엄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그레엄은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의 도움에 힘입어 아스널과 2-2 무승부를 거뒀다.

1일 아스톤 빌라와의 정규리그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한 기성용은 이날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경기 후 영국 축구 전문매체 골닷컴은 "놀라운 패스 능력으로 레온 브리턴을 잘 보완했다"고 호평하며 기성용에게 평점 3(5점 만점)을 부여했다. 웨일스온라인 역시 "최근 몇몇 경기보다 나은 활약을 펼쳤으며 중원에서 볼을 잘 움직여 전달했다"며 평점 7을 줬다.

/김민준기자